

## 요한계시록 6장 12-17절 말씀

12 내가 보니

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

큰 지진이 나며

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

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

13 하늘의 별들이

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

땅에 떨어지며

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

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

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

모든 종과 자유인이

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

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

우리 위에 떨어져

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

우리를 가리라

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